‘개혁급 변화’ All New 신한 활용 가능한 자원 많아졌다

장신 김연희+파워 김소니아, 골밑 수비 든든 김진영 투지·한채진 리더십 등 팀 재편 찬스


구나단 감독

여자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은 2021~2022시즌을 마치고 개혁 수준의 변화에 직면했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김단비(32·아산 우리은행)의 이적이 핵심이다. 늘 전력의 상수로 평가받았던 국내 최정상급 스코어러다. 2021~2022시즌 정규리그 득점 2위(평균 19.33점), 리바운드 3위(8.75개), 블록슛 1위(1.79개), 스틸 6위(1.21개)에 오른 전천후 간판스타를 잃은 타격은 상당하다. 또 다른 포워드 자원 한엄지(24)도 부산 BNK썸으로 떠났다.

충격이 크지만, 긍정적 요소도 분명 존재한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일단 부천 하나원큐에서 FA 자격을 얻은 구슬(28)을 영입했다. 2021~2022시즌 부상으로 2경기 출전에만 그쳤지만, 2018~2019시즌부터 2020~2021시즌까지 3시즌 동안은 매번 평균 10점 이상·4리바운드 이상을 기록한 포워드다. 부상 없이 꾸준히 뛸 수 있다면, 팀의 득점력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이다.

김단비와 한엄지의 이적에 따른 보상선수 2명도 신한은행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다. 특히 우리은행에서 데려온 김소니아(29)는 공수 양면에서 김단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탁월한 운동능력을 자랑하는 김소니아는 내·외곽을 넘나드는 공격력과 강력한 수비력을 겸비한 포워드다. 2021~2022시즌 득점 6위(16.82점), 리바운드 4위(8.21개)를 기록했다. 2021~2022시즌 43개의 3점포도 꽂았다.

BNK에서 영입한 김진영(26)도 2021~2022시즌 8.73점·7리바운드(8위)를 기록한 포워드다.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팀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

활용 가능한 자원은 오히려 늘었다. 나란히 FA 자격을 얻었던 센터 김연희(26), 포워드 한채진(38), 가드 이경은(35)과 모두 재계약한 덕분이다. 187cm의 장신 센터 김연희, 파워가 뛰어난 김소니아의 조합은 골밑 수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 실력과 리더십을 모두 갖춘 한채진은 김단비가 떠난 상황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카드다. 2021~2022시즌 도중 정식 사령탑으로 승격한 구나단 감독으로서도 팀을 재편해야 하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PGA 챔피언십’ 오늘 개막

우승 도전 우즈, 출전 포기 미켈슨에 일침



“걷는 것 힘들지만 강해지고 있다”
통산 4차례 우승했던 대회 자신감
‘리브 골프’ 호의적 입장 미켈슨엔
“골프계 양분하고 분열시키고 있다”

교통사고 후 1년 2개월 만의 복귀 무대였던 지난 4월 마스터스. 온전치 않은 몸으로 72홀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며 공동 47위에 올랐다. 예상을 깬 조기 복귀 자체가 ‘기적’이라는 평가 속에 여전히 당당한 ‘골프 황제’의 위엄을 보여줬다.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맞는 복귀 후 두 번째 무대. 통산 4차례 패권을 차지했던 기분 좋은 추억을 떠올리며 새로운 신화에 도전한다.

타이거 우즈(미국)가 19일(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서던힐스 컨트리클럽에서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총상금 1200만 달러·152억4000만 원)에 출격한다. 조던 스피스(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와 오후 10시11분, 10번 홀에서 1라운드를 시작한다.

우즈는 PGA 챔피언십에서 1999년, 2000년, 2006년, 2007년 등 모두 4차례 우승했다. 마지막 2007년 우승 당시 코스가 이번 대회가 열리는 서던힐스였다.

타이거 우즈가 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 개막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열린 공식기자회견 중 환하게 웃으며 말하고 있다. 털사(미 오클라호마주) | AP 뉴시스

개막을 하루 앞둔 18일 공식기자회견에서 우즈는 “걷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강해지는 것을 느낀다. 연습시간도 길어졌고 발전하고 있다”며 “확실히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로 5번째 패권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우즈는 ‘디펜딩 챔피언’ 필 미켈슨(미국)이 이번 대회 출전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 “그가 여기에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PGA 투어에 대한 그의 관점은 골프계를 양분하고 분열시키고 있다”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미켈슨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는 리브(LIV) 골프 인터내셔널 시리즈 출범에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PGA 투어 통산 82승으로 작고한 샘 스니드(미국)와 역대 다승 공동 1위에 올라 있는 우즈는 이번에 챔피언에 오르면 메이저 통산 16승을 달성해 역대 최다 주인공인 잭 니클라우스(미국)의 18승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된다.

미켈슨은 나서지 않지만 이번 대회에는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 2위 욘 람(스페인)을 비롯해 스피스, 매킬로이, 저스틴 토마스(미국)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동한다.

한국 선수는 모두 5명이 출전한다. 지난 주 AT&T 바이런 넬슨에서 한국인 최초로 PGA 투어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이경훈(31)을 비롯해 김시우(27), 김주형(20), 김비오(32)가 나선다. 2009년 이 대회 챔피언 양용은(50)도 역대 우승자 자격으로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박현경

‘박 vs 박’ 첫날…박현경이 웃었다

박현경 vs 박결

두산 매치플레이…박결에 2홀차 앞서
김지현, 노승희에게 5홀차 완패 ‘이변’

박현경이 첫날 ‘빅매치’로 꼽힌 박결과의 맞대결에서 웃었다.

4조 박현경은 18일 강원 춘천시 라데나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2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8억 원) 첫날 조별리그 1라운드에서 박결을 2홀 차로 따돌렸다. 16번 홀까지 1홀 앞선 뒤 파4 17번 홀에서 약 3m 거리의 버디 퍼트를 홀컵에 떨궈 파에 그친 박결에게 2&1 승리를 거뒀다.

KLPGA 투어 사상 최초로 2주 연속 타이틀 방어에 도전하는 2조 박민지는 전우리를 4홀 차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15번 홀에서 일찌감치 승부를 끝냈다. 박민지는 지난주 끝난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2연패에 성공하며 시즌 첫 승과 함께 통산 11승을 수확했다.

KLPGA 투어 영구시드권자로 이번 대회 전체 1번 시드를 받은 1조 안선주는 안송이와 18홀까지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도 무승부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 대회 결승에서 박민지에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던 14조 박주영은 오경은에게 7홀 차 완승을 거뒀다. 지난 오프 시즌 결혼한 박주영은 임신 6개월임을 밝히며 이번 대회를 끝으로 출산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이 대회 정상에 올랐던 13조 김지현은 노승희에게 5홀 차 완패를 당하며 첫날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 김도헌 기자

CJ WELLCARE

100% 국산 저온농축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